

시로 읽는 성보순례

석굴암 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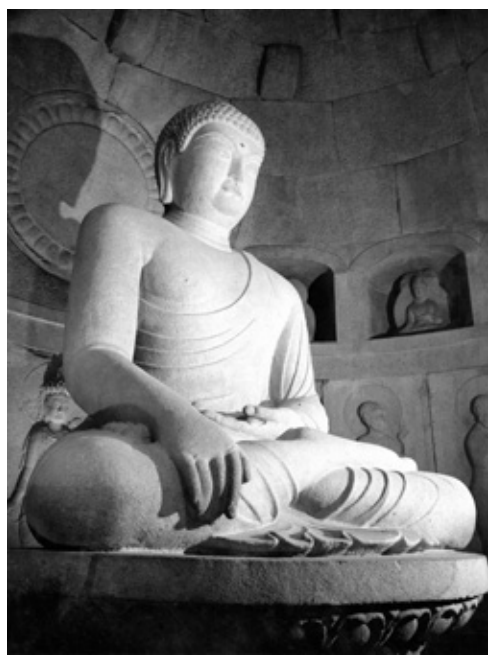
오현 스님

도함이 떠갑니다 동해 푸르름에
편주의 사공인 양 대불은 졸립니다
하 그리 바다가 멀어
깨실 날이 없으신 듯

허공에 던진 원님 해를 지어
밝혔느니
밤이면 명명한 수평
달을 건져 올립니다
진토에 뜨거운 말썸을 쓸썸처럼
묻으시고

사모의 깃털 뽑아 보내 눈 갈매기는
오늘도 어느 바다
길을 잃고 도는 걸까
무량심 파도로 밀려 무릎까지
오릅니다

<국보사랑 시집-불멸이여 순결한 가슴이여> 중에서



오현 스님은... 경남 밀양 출생.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 시집 <심우도> <아득한 성자> 등. 정지용 문학상, 공초 문학상 등 수상. 현재 설악산 신흥사 조실.

“새해 공생의 지혜 모으자”

불교 각종단 종교지도자들 신년사 발표

2012년 임진년(壬辰年) 새해를 맞아 종교 지도자들이 신년 메시지와 법어를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급서로 인한 정세 불안과 2012년 진행예정인 선거를 앞두고 평화와 협력의 지혜 찾기를 강조했다.

불교계에서는 우리 사회가 올해 겪었던 갈등과 분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자비와 나눔의 정신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사회화합에 앞장서기를 기원했다.

조계종 총정 법전 스님은 “여러분의 눈

앞에 좋은 날을 만드는 묘용(妙用)이 있으니 버린 자는 얻고 취하는 사람은 잃습니다”며 마음 속 본래 자리를 잘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법전 스님은 또 “치우치면 일승으로 돌아가는 길을 잃고 윤통하면 걸림 없는 자재를 얻을 것입니다”라며 임진년 한 해 동안 대중들의 평안을 기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새해 두 번의 선거와 북핵에서 전해진 세연이진(世緣已盡)의 소식이 민족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다리고 있다”며 지혜로운 선택과 선업공덕을 강조했다.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지도자들도 “승천하는 용의 기상으로 세계의 중심에 서자”며 불자들의 활약과 국민 모두의 화합을 발원했다.

이웃종교계에서도 2012년 새해를 맞아 종교화합을 비롯한 우리 사회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움직임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석 추기경이 “눈앞의 이익을 보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평화와 기쁨의 삶을 기원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목사는 “북한의 정세변화와 상관없이 화해와 상생, 평화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새해가 갈등과 분열의 끝이 매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했다.

경산 원불교 총법사도 “각자 각자가 공익의 참 주인, 세상의 큰 주인으로 이정표가 되고, 공익정신은 한층 넓은 길을 개척하는 한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A7·8·9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비구니 스님들 “참정권 강화” 요구

현행 10석인 의석수 확대 논의

비구니 스님들이 참정권 강화를 위한 1차 회의를 구암 28일 총무원 회의실에서 가졌다.

이날 스님들은 현행 10석인 의석수 확대를 위한 방안과 비구니 관련 부서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세간에서는 선거 때마다 여성 의원 비율을 30%까지 높여야 한다는 여성 할당제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구니 스님들의 의석수 확대 요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기된 것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중앙총회 의석 중 비구니 스님의 비율이 낮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총련 기구 중 법규위원회, 초재심위원회, 소정심사위원회에는 비구니 스님들이 전무한 상태다. 총련에서는 위원회 참여 자격을 ‘비구’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구니 의석수 확대는 비구 스님들의 반대가 가장 큰 난관이 될 전망이다.

비구니 스님들은 1월 중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하고 세부적인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스님들은 앞으로 몇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 등을 통해 의석수 확대의 필요성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중앙총회 비구니회 회장 일운 스님은 “불교 발전을 위한 비구니의 역할을 먼저 점검한 뒤, 비구니 위상 강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smle2@hyunbul.com

창원 봉림사 도서관 불서기증식

조계종 문화부·불교출판협회

창원 봉림사(주지 시진)에 불교도서관이 문화 확산을 위한 8번째 사찰도서관이 들어서 구암 22일 ‘부처님 글사랑, 사찰도서관 불서기증식’이 열렸다.

행사는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와 불교출판문화협회 공동 주관으로 마련돼 불교출판문화협회 기증본 700여 권의 불서 및 기증서가 전달됐다. 봉림사에는 ‘부처님 글사랑’ 현판도 부착됐다.

한편 문화부는 지난해까지 B.O.림사를 비롯해 군포 정각사 등 8곳의 불서사랑 사찰 도서관을 선정해 지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학생인권조례 정착이 더 중요

종자연 등 실천지침 마련 촉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안 수정 동의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불교계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조례 정착을 위한 조속한 후속작업을 촉구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구암 21일 논평을 발표하고 “학생의 종교인권보장을 명문화한 이번 조례 제정이 학교의 강제 종교교육으로 고통 받아 온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불교청년회도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조례의 정착을 위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활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박기범 기자

‘불교는 서원의 종교’ 알고 있다 89%

불자 300명 대상 조사...불보살 별원은 28%만 알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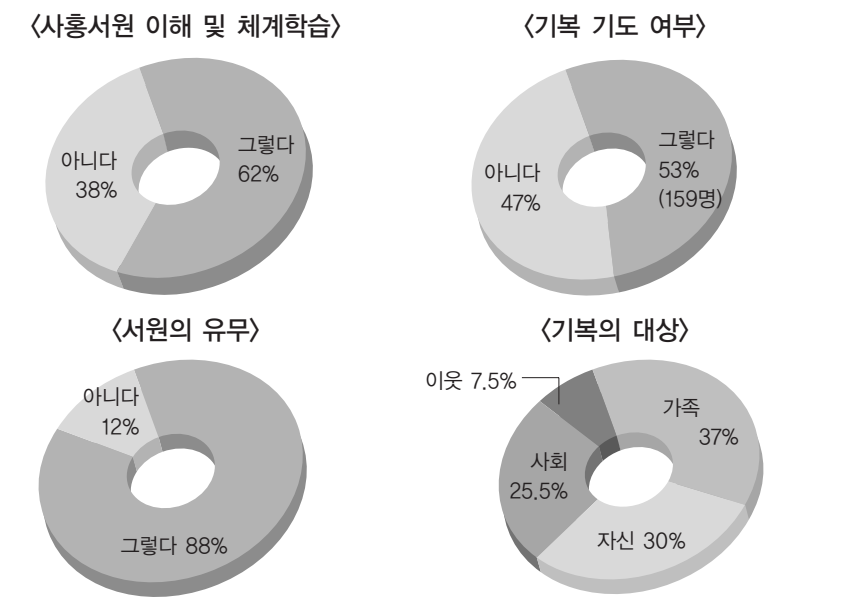
본지는 구암 10~25일 불자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및 직접 대면 조사 방법으로 사후서원 등에 대한 불자들의 이해 정도를 조사했다. 2012년 신년특집 기획 ‘서원의 종교 불교, 함께 행복합시다’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설문에서 “불교가 자기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서원하고 발원하는 종교라고 생각십니까?”라고 묻는 질문에 268명이 ‘그렇다(89.3%)’고 답했다.

또, 사후서원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학습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186명이 ‘그렇다(62%)’를, 114명이 ‘아니다(38%)’라고 응답했다.

아미타불 48대원, 약사여래 12서원, 보현보살 10행원 등 별원(別願)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8%인 84명만이 ‘알고 있다’고 답했다.

불보살에 복을 받고 구하는 기도를 하느냐는 질문에는 53%인 159명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 정진과 더불어 이웃과 함께 행복하기를 불보살님께 발원하고 서원을 다짐하느냐는 질문에는 240명(80%)이 ‘그렇다’고 답했다.

불자들은 대부분(88%) 서원을 갖고 생활하고 있었다. 그 대상은 가족(37%)·자신(30%)·사회(25.5%)·친구 등 이웃(7.5%) 순이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대한불교원효종

佛紀 2556年 壬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

종정벽송 원로원장 창해

총무원장 향운
원로위원 법성, 혜담, 호성, 해초

중앙총회부의장 진혁, 명관
중앙총회법규위원 지상, 상경, 성은

서울총무원장 진산 부산총무원장 법웅
전북총무원장 경오 전남총무원장 마명
전국비구니회장 명관 전국비구니부회장 자성
복지위원장 인명 규정위원장 김대행 규정부장 성암

총무부장 상묵 사회부장 효달 교육부장 대각 문화부장 대호 재무부장 상기 복지부장 범일 사회국장 상천 교육국장 상오
복지국장 우담 재무국장 능인 문화국장 무해 규정국장 행길 감사국장 남수 포교국장 선법

중앙신도회회장 이응균 중앙신도회부회장 김용태

전 원효종 종도 일동 합장

총무원 : 서울 종로구 청진동 11-6 삼선빌딩 601호 전화 02)735-0501
울산사무소 :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565-3 전화 052)262-6857